

음악으로 되새기는 '학생독립운동'



지난해 10월 (구)나주역사에서 펼쳐진 나주학생독립운동 현정음악회 '어두운 역사, 빛으로 만나는 시간' 공연 장면. <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 제공>

무지크바움 유스오케스트라 30일 진원지 '옛 나주역'서 현정음악회 성악·시낭송 등 저항정신 풀어내

나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옛 나주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과 일본 기차 통학생들이 무력충돌을 빚으면서 발발했다. 당시 일제 학생들이 한국 여학생(박기옥)의 땀을 잡아당기며 희롱하는 것에 격분한 조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대규모 항일 시위와 11월 3일 독립운동으로 확산됐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 94주년을 앞두고 학생독립운동이 시작됐던 '옛 나주역'에서 그 의미를 되살리는 현정음악회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사)무지크바움이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옛 나주역 대합실에서 '제15회 나주학생독립운동 현정음악회-아름다운 사람들'을 펼친다.

나주학생독립운동은 일제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운동에 도화선이 됐으며,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히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 옛 나주역에서 청소년 유스오케스트라 현악 앙상블 등이 '음악'을 매개로 그날의 정신을 되새긴다는 계획이다.

먼저 신정문의 지휘에 맞춰 무지크바움(이화) 유스오케스트라 현악 앙상블 단원들이 슈베르트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감미로운 악곡이지만 슈베르트가 작곡할 당시 삶의 고초를 겪었다는 점은, 고난 끝에 자유를 되찾은 한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환기한다.

무지크바움 유스오케스트라는 나주지역의 다양한 학교에 재학 중인 여덟 명 학생으로 구성된 스트링 앙상블이다. 이예진(영산포여중1·바이올린), 정강호(빛누리초6·바이올린), 신예지(나주상고1·비올라), 유은유(금천중1·첼로) 등 나주 학생들이 단원으로 있다.

이어 엔리코 모리코네 곡 '가브리엘 오보에'도 감상할 수 있다. 영화 '미션'에서 선교사가 원주민의 마음을 열게 만든 곡으로도 유명한 작품. 베스네라의 '하얀 아카시아 추악'은 소프라노 박경숙이 부른다. 박경숙은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을 졸업했으며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등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11년, 1929년 10월 30일 해 질 녘 나주역 광장/대한민국 업신여기는 소리, '샌진노 구세니(조선인 주제에)'/ 울려 뻗는 맨주먹, 우리는 피 끓는 학생, 타오르는 성화다"(형광석 '타오르는 성화' 중에서)

목포과학대 형광석 교수가 쓴 헌시 '타오르는 성화'는 시 낭송가 노경호가 낭송한다. 시인이자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형광석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 '장제성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시낭송가 노경호는 제15회 전국 심연수 시낭송대회 대상, 제1회 보령 해변시인학교 시낭송대회 대상 등 전국 시낭송대회에서 7회 이상 수상했다.

이외에도 첼리스트 김창현이 김선철의 '엄마야 누나야 주제에 의한 변주곡', 슈베르트 가곡 '모든 영혼을 기리는 날의 기도', '밤과 꿈', 피아졸라 '망각',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을 연주한다.

김창현은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에서 수학 후 독일 브레멘 국립음대에서 디플롬을 받았으며, 독일 뉘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작곡가 김선철은 연세대 음대를 졸업하고 비엔나 시립음악원, 폴란드 크라코프 국립음대에서 수학, 이후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무지크바움 김선철 음악감독은 "나주학생독립운동은 1920년대 중반 이후 학교에서 전개된 독서회, 성진회 등의 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를 계승하고 추모하는 의미에서 현정시와 현정곡으로 공연을 가득 채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클래식 전문단체로 결성된 무지크바움은 "제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광장서 만나는 '틈새호텔'

광주폴리II 27~29일 전시...SNS서 경품 이벤트도

광주폴리II의 작품 중 하나인 '틈새호텔'은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서도호 작가와 서아키텍스가 함께 만든 움직이는 호텔이다. 트럭 형태로 이동 가능하며, 특정 지역에 고착된 호텔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공간의 틈새를 따라 유동하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광주비엔날레가 비엔날레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광주폴리II 틈새호텔을 전시해 눈길을 끈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20일~22일에 이어 27일~29일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틈새호텔'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제 집대를 비롯해 화장실, 숙박시설, 편의시설을 갖춘 작품 내부를 공개한다.

전시 기간 중 SNS 이벤트도 진행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송 바디케어 또는 광주폴리 아트상품을 랜덤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양선옥 광주폴리부장은 "틈새호텔 전시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도심 재생 프로젝트인 광주폴리의 취지와 의미를 접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광주비엔날레는 '99칸', '유동성조절',



'틈새호텔' 내부

'투표', '광주사람들' 등의 폴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성가족친화마을' 벤치마킹 전국구 관심

광주여성재단 사업 10년째...돌봄·경제 등 4개 프로그램 호평



지난 21일 여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광주여성가족 친화마을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을 방문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은 성평등 관점에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10년째 추진돼 왔다. 양성평등법 39조와 광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4조 2항을 법적 근거로 두고, 광주시 지원을 통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사업을 맡고 있다.

올해 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광양, 여수 시민참여단이 광주 선진사례지를 견학하는 등, 광주시가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 벤치마킹 대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광주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 광역형 모델'로 선정돼 5개 지역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와 맞물려 광주시 의회는 조례제정과 예산 협력, 행정기관은 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 및 예산 지원, 민간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공모사업에 참가하는 등 분야별 공조를 통해 내실을 다져왔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돌봄', '경제', '안전', '공동체'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돌봄 영역에서는 점대점일용직제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제작해 여성들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화삼골 피앗', 마을특산물을 활용한 마을기업 '매화락협동조합(매곡동)' 등을 운영했다.

이같은 성과가 알려져 광주여성가족친화마을 여성친화도시에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여성가족국 서영조 주무관은 "여성평등이 거창하고 일삼고 땀 흘려진 것 같지만 주변 곳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여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피아노 선율은 '비엔나'를 신고

김정아 독주회, 31일 금호아트홀

음악 예술의 산실 '비엔나'에서 영감을 받은 피아노 독주회.

T&T예술기획이 피아니스트 김정아(사진) 독주회를 개최한다. '비엔나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은 김정아가 오스트리아를 유학하며 느낀 감상들, 예술도시 비엔나의 역사 등을 음악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비엔나에서 태어난 예술가 슈베르트의 '즉흥곡 D.899 1번', 'D.935 2, 3번', '소나타 D.959 2악장'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 오스트리아 출신 베토벤의 '피아나 소나타 31번 내림 가장조'도 레퍼토리에 있다.

김정아는 서울예고와 이화여대 음대,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에서 디플롬을 받았다.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그동안 광주시립교향악단, 러시아 차이콥스키 소사이어티 교향악단, 불가리아 트란실바니아 교향악단 등과 협연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는 '피



아니스트가 읽어주는 위대한 음악가 편지' 등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선보인다. 현재 광주대 교수로 재직 중.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